

“창문 닫아도 분진·연기 가득...충혈·두통에 힘들어”

■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대피소 가보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인근 주민 200여명 대피 26명 의료지원...적십자 등 주먹밥·음료 기부 온정

“새까맣고 매캐한 분진과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하던 4살 딸이 구토하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집을 쏘아주세요.”

18일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이곳에는 전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텐트(셀터)가 마련돼 있었다.

200여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수심이 가득했다. 이들은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의자에 앉아 전광판 TV를 보거나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TV 화면에 ‘내부 고무 원재료가 있어 계속 화염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제 막 체육관에 도착한 오윤영씨(41·여)는 담요, 휴지, 양말, 수건 등이 담긴 응급구호 세트를 받고 한숨을 돌렸다.

오씨는 “처음에는 불이 금방 꺼질 것으로 생각해 대피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배란과 창문을 닫아도 새어 들어오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8살 아들은 눈이 빨개지고, 기침하던 4살 딸이 구토하는 모습을 보고 서둘



18일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주민들이 머물고 있다.

러 집을 쏘게 됐다. 체온계, 아이 이불 등 간단한 것만 챙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구호 텐트에 오니 이들의 증상이 다소 호전됐다”면서 “은동네가 매캐한 연기가 뒤덮인 상황에 학교를 보내는 것이 맞는지 싶어 담임교사에게 결석한다고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두통, 목마름 등을 호소한 주민 26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이날 아침에도 몸 상태가 나빠진 주민이 광산보건소가 마련한 응급부스를 찾아 두통약을 처방받았다.

황급하게 나온 탓에 충분한 옷과 이불

등을 챙겨오지 못해 다시 집으로 향해야 하는 피해 주민도 있었다.

광산구청 직원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안내했다.

2021년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무했던 서종례씨(64·여)는 “제가 떨어지고 시꺼먼 연기를 맡으니 목이 이상함을 느껴 대피소로 왔다”면서 “다행히 혈압, 당뇨약을 챙겼지만 여벌의 옷을 빼뜨렸다. 옷을 가져러 집에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피소 운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떠나나, 빵, 음료 등을 기부하는 손길도 잇따랐다.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임직원, 적십자봉사단, 재난심리지원활동가 등 45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 주먹밥 250인분, 생수 300병을 지원했고, 이재민 텐트 100개와 매트 60개를 광산구에 전달했다.

또 주민 대피소로 마련된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텐트 45동을 설치하고, 긴급구호품 132세트를 제공했다. 추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재난심리상담 활동가를 파견해 이재민 심리지원을 할 예정이다.

북구도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북구는 생수, 빵, 마스크를 비롯해 구호텐트, 모포 등 1t 트럭 2대 분량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진압하는 헬기 17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소방 대응 1단계 하향...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전국 진화대원·장비 복구...광산지역 소방대원 총동원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됐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18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6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진화율이 90%를 넘어 95%에 도달했다”며 “이에 따라 오후 2시 50분을 기점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고, 소방대응 1단계로 하향시켰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통해 전국에서 소집한 진화대원 등 인력 300여명을 순차적으로 본원 복귀시키고, 180여대의 소방장비도 원위치 복귀시켰다. 현재는 소방대응 1단계로 광산지

역 소방대원들을 총동원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화재 초기에는 공장 건물의 전소 우려가 있었으나 약 50~60%가 보존된 상태다. 다만 생고무 연소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이 되더라도 3~4일 연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무너진 건물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씨인 이른바 ‘도깨비불’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공장 일부를 굴삭기로 제거한 이후 멀리서 물을 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다량방수포와 고성능 소화차 등을 통해 다량의 물을 주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다량의 물 투입으로 수압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황룡강 인근 수원을 통한 펌핑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3중·4중 증개 펌프 체계를 통해 물과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병행 사용하고 있고, 필요 시 고성능 포를 추가 투입해 내부 발화점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현재까지 총 3명이다.

대피 도중 20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 1명이 추락, 머리·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도중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었다. 이중 1명은 안면부 2도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중이며, 다른 1명은 치료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정일택 대표 “주민에 불편·심려 끼쳐 죄송”

합리적 보상안 강구 약속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사진)는 18일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빠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화재 진압과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장 내부는 거의 전소 상태이지만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해 변별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광산구청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합리적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옥주 금호타이어 상무는 “내부에는 스프링클러, 소화전,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가 있었지만, 생고무의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연소된 주요 인화물질은 생고무, 반가공 타이어 등으로 완제품은 초기에 외부로 반출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현아 기자 aura@imgoo.com
임정호 기자 ljh4415@

광주 기아차 공장서 40대 직원 끼임 사망사고

기아오트랜드 광주 “깊은 위로...대책 마련 약속”

기아 광주공장에서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과 기아오트랜드 광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6분 광주 서구 내방동에 위치한 기아 광주공장에서 “직원이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주변엔 다른 작업자가 있었음에도 라인 구조 특성상 1인이 담당하기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목격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기아오트랜드 광주 관계자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지산동지주택 시공사

‘태황중합건설’로 변경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변경됐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공고됐다.

고시문에는 지산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주)한길산업에서 태황중합건설로 변경됐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1일~2026년 2월28일로 연기됐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3월29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지난 4월28일 시공사를 한국건설에서 태황중합건설로 공동사업주체·시공사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동구에 접수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람과 도시

크고도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결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상하의무부) 기초공사가 필요 없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용(거문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빛물 저류 침투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공극률 95% 이상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플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한길산업 (주)한길산업

본 사 1(광주) 전남 영광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당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